

특별편지만 2번...공공 숨은 이만희, 셀프격리나 책임회피나

청도 대남병원 친형 장례 이후 행적 묘연...감염설 돌아 신천지 신도명단 이외 위장교회 자료 제출 수습 나서야



이만희 신천지에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5일 오전 9시 기준 89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심에는 국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있지만, 아직 이만희 총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앞서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지난 23일 서울 중구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돌연 취소하고 김시몬 대변인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방적으로 입장문만 읽고 끝낸 바 있다. 이 회장은

영상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다만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천지에수교회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 신천지 전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교육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 편지’만 올렸을 뿐이다.

유튜브 등을 통해 신천지 교리를 지적해 온 윤재덕 종말론사무소 소장은 이 회장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봤다. 그는 “본인은 숨은 채 이 문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유튜브 채널에) 대변인을 내보냈다는 것은 사과를 하거나 책임감을 있는 태도를 보이지 거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친형의 장례식을 참석할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이 된 상태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측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친형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감염진원지로 나타난 곳이다.

윤 소장은 “당사자가 직접 밝히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이 확산 원인이지만 (영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에수교회 교육장에서 경기도 역학조사관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원을 방문한) 웬만한 사람들이 다 걸렸는데 이 회장은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무리 자가격리 중이라고 해도 사회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책임감 없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신천지 관계자는 이날 “(이 회장은) 현재 전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회장의 추가 입장 발표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측에 따르면 이 회장은 현재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의 거처는 경기도 인덕원 인근과 가평, 경북 청도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해 공개석상에서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만희 회장을 향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이 종교 집단이 이러한 물의를 끼치는데 어떤 형태든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며 “뒤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본인이 나와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체 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던 신천지 측은 정부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신천지와 협의해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신천지 측에서 숨어있는 위장교회나 잠재적 신도들에 대한 명단도 공개할지 여부다.

신현욱 신천지 문제 전문 상담소 목사는 “신천지 전체 신도 명단 공개는 당연히 해야 하고, 위장교회를 통해 접촉한 잠재적 신도들 10만여명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신천지 측에서 처음에 입장 발표를 했을 때는 24만5000명이라고 했는데, 정부 측에 제공한 명단은 21만

명으로 나온다”며 “신천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위장교회는 전국에 100여곳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 소장은 “우리나라 중소도시마다 최소 하나씩 있다고 보면 된다”며 “도시마다 다르지만, 수도권 경우 작은 동네마다 5~6개씩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예배 방식이 전염 불러왔을 것”-美언론

‘몇초마다 아멘 외친 것’ 주범

미국 공영라디오인 엔피알(NPR)이 한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보도하면서 몇 초마다 온힘을 다해 아멘을 외치는 신천지의 예배 방식이 병의 확산을 불러왔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24일 NPR은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의 중심은 비밀 교회 분파’ (Secretive Church Sect At The Center Of South Korea’s Coronavirus Outbreak)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전했다.

NPR은 특히 확진자의 다수가 나온 신천지(정식 명칭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를 보는지 설명했다.

NPR은 “1984년 카리스마 넘치는 이만희 목사가 세운 교회로 전세계적으로

24만 명으로 추산되는 신도를 가졌다”면서 “신자들은 이 목사를 메시아(구세주)로 여긴다”고 전했다.

특히 비판가들이 설명한 신천지의 예배 방식에 주목했다. 종교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예배 방식 때문에 교회 내에서 빠르게 퍼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구리이단상담소의 신현욱 목사의 말에 따르면 신자들은 의자없이 바닥에 폼나물처럼 뻘뻘하게 앉아 예배를 본다.

NPR은 “특히 더 큰 문제는 목사가 설교하는 문장 끝마다 ‘아멘’이라고 온힘을 다해 외치는 것이었다”는 신 목사의 말을 전했다. 몇 초마다 아멘을 외치면서 침방울이 튀어 코로나19를 퍼뜨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NPR은 많은 한국인들이 이 종파에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상대를 개종시킨다고 전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과 관련 광주 신도 등 광주지역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3일 광주 광주 북구 신천지 베드로지성전이 통제돼 있다.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